



양계산물 소비로 식생활 개선을

요즈음 식생활개선에 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정부도 29억원을 지원하여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육류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비홍보도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80년도의 흉년에 따른 식량부족 등 쓰라린 경험을 맛본 우리는 식생활개선으로 주곡의 자립을 이룩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미 소비운동에 적극 호응해야 하며 혼식 등으로 주곡자급을 앞당겨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값싼 닭고기나 계란을 곁들여야 한다는 것도 함께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직도 한의사들은 하루에 계란 2개 이상을 먹지 말라는 글을 쓰고 있으며 한약 복용기간에는 닭고기를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러한 잘

못된 인식을 하루 빨리 고쳐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우리가 선발 중진국민이 되면서부터 군살을 빼기 위해 굶는 사람의 수가 부쩍 늘고 있는데, 체중증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닭고기를 권장하여 크게 효과를 보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소비홍보에 이용할 때가 되었다.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조지·아벨라 교수는 18세 이상의 미국인이 몸에 붙이고 있는 기름덩어리가 23억파운드 즉 1백4만3천2백57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5톤트럭 20만8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히 지방이 적고 단백한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84년부터 대중음식점의 본격적인 주문식단제 실시를 위해서 대대적인 국민제도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며 주문식단제 실시업체에는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양계산물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조사해야 한다.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식산업이 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의 롯데리아, 아메리카나 외에도 미국의 파이오니아가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이며 켄터키 후라이드치킨도 개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외에 미국동부와 동양에서 더욱 많이 알려진 처치 후라이드치킨도 상륙준비를 하고 있어 양계업자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던킨도너츠가 외국 합작으로, 더도너츠가 외



국 기술제휴로 개점하였고 그의 외식산업의 합작 기술제휴 등 문호가 개방되어 서울에 앉아서 세계의 맛을 맛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조사 결과 이들이 한국상륙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동일규격과 품질의 닭고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브러일러산업의 제 2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상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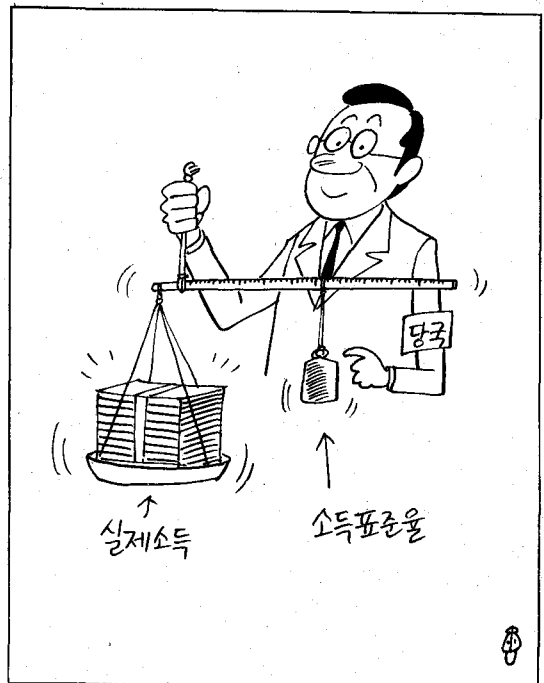
정부나 축협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생산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의사는 수술을 하고 투약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나 이러한 것들은 병이 더욱 악화되지 못하게 하고 치료를 도울 뿐이지 인체 스스로의 노력 즉 세포들 자체만이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표준을 확정

우리 양제업체는 아직도 소득표준율에 관심을 갖는 미(未)기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득표준율의 높고 낮음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매년 이때면 소득표준율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을 철저히하여 추계과세를 받지말아야 되고 이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표준율도 그해의 실제 소득과 근사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의 소득표준율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종 목	구 분	적용구분	기 본 율				준용종목 및 적용범위
				78	79	80	81	
11	낙농및 육 우사육		1억원미만				8	○우유 및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 및 젖 양을 기르는 낙농업(낙농사업체에서 우유를 살균 하여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과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우 사육장
			1억원이상	10	9	9	8.8	
12	양 돈		1억원미만	14	10	10	10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사육업
			1억원이상				11	
13	양 봉		1억원미만	18	18	18	18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1억원이상				19.8	
14	기타 가축	양 계	1억원미만	12.5	11	11	10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를 제외하고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사육업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육업(양계 제외) ○누에를 치는 양잠업 ○기타의 축산활동으로서 종축, 종금 사육장,애완용 동물사육장, 야생조수류 사육장(수렵용 제외), 실험 용 사육장 포함
			1억원이상				11	
		사슴	1억원미만				14.5	
			1억원이상				15.9	
		기타	1억원미만				12.5	
			1억원이상				13.7	
	(기타가축및 가금사육)	(기타)	1억원미만				12.5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가 금부화업
			1억원이상				13.7	

수입자유화와 양계산물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주곡 이외에는 점차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축산업은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당분간은 그리 큰 걱정은 하지않아도 될 것 같지만 현재도 쇠고기, 분유 등이 수입

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도 수입이 검토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닭고기와 계란가격을 참고로하여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와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화 물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개코자 한다.

계란의 경우에 일본이 82년도 수입 가격으로 보면 (C&F기준)액란이 kg당 665원에서 764원 (3.2로계산)이며 난황은 1,147원에서 1,575원, 난분은 kg당 2,415원에서 3,120원, 난황분은 2,759원에서 3,355원, 난백은 623원에서 3,483원으로 가격차가 심하다.

액란의 경우 평균 수입단가가 794원으로 계란 18개를 1kg으로 볼때 껍질없는 계란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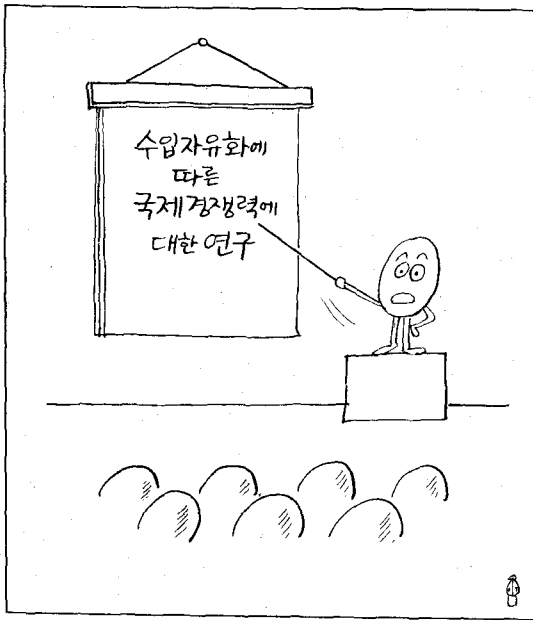
〈표 1〉 농장도 생산비(파운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사 료 비	¢17.43	생체중 4.40LBS (1.98kg) 사료 요구율 2.05 $\$170/t \div 2.000LBS = ¢8.5/LBS$ $¢8.5/LBS \times 2.05 = 17.43$ 전기사료 $\$180/t = ¢11.11/LBS$ 후기사료 $\$165 \sim 175/t = ¢8.25 \sim 8.75/LBS$ 휴약사료 $\$165/t = ¢8.25/LBS$
초 생 추 대 51-52일령 출 하	¢3.28	1 수당 ¢14 육성율 97% $¢14 \div 0.97 \div 4.4LBS$
약 품 대	¢0.59	백 신 기 타
인건비(위탁료)	¢3.5	월 17,000수 출하(1회 4만수, 년 5회전)
운 임	¢1.20	
수 도 광 열 비	위탁료에 포함	수도, 전기, 연료대.
감 가 상 각 비	"	미국은 계열화되어서 위탁료에 포함하며 사육 성적에 따라 보나스가 있어 차이가 있다 예로 ¢3.25, 3.3-3.5, 3.6, 2.9-4.05 등이 있다.
금 리	"	
기 타 잡 비.	"	
합 계	¢26.00/LBS	57.320/kg 430원

〈표 2〉 도체 LBS당 생산원가(RTC로 간, 심장, 근위 포함)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재 료 비	¢34.8	원료대 $26¢ \div \text{도체율}(74.7\%) = 34.8$
인 건 비 경 비	¢8.04	인건비 ¢4.41 경비 ¢3.63 정도
소 계	43.20	
부산물 공제액	¢0.84	불가식 부분의 사료 등으로 처분
생 산 원 가	¢42.36	도 체 원 가
판 매 관 리 비	¢7.0	¢3.0의 소비지까지의 운임 포함
영업외 비용	¢1.0	
총 계	¢50.36	kg당 ¢111 832.70원 / kg

1 \$ = 750원으로 계산 한국도착은 약 kg당 1,050원 정도로 추정된다.



당 44.10원이 되어 국내산업이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물론 냉동액란의 수요처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생산비절감을 위한 양축가의 노력과 관세의 운용, 수입장구의 일원화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도계유통 한 달을 지나며

서울시에서 3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생계유통과 밀도계단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양계업자들의 반응은 76년 이후의 또하나의 연례행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끝없이 발전하는 것으

로 과거의 단속→생계상휴업→부로일려체화→생산자들의 단속완화 건의→단속완화→생계판매의 공식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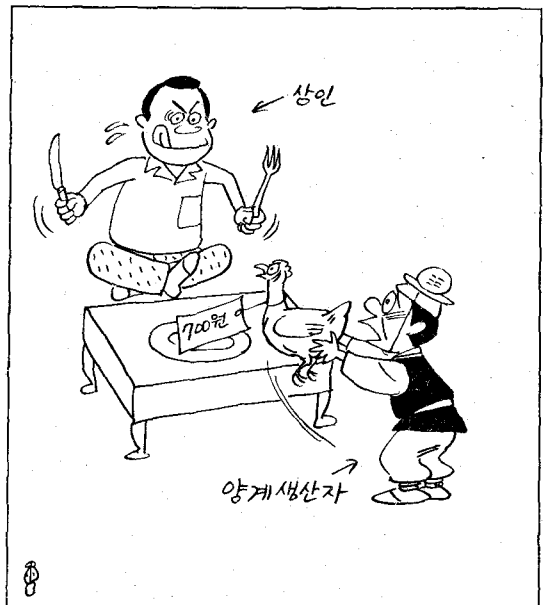
구정이지난 2월 18일부터 생계상들은 판매보다는 수급위주로 장사를 하여 불과 1주일만에 생산비 이하로 닭값이 하락하고 그것도 주도권을 완전히 상인이 장악하게되어 오늘까지 700원선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큰 물량의 체화없이 생계는 시장에 없으면서 생산자 출하가 격만 하락시켜 장사의 주도권을 잡고 생산자 위에 군림하는 유통체계가 이루어져 가고있다.

700원 이하로 닭값을 하락시킬 수도 있으면만 그렇게되면 복잡해지니까 700원은 유지시켜 준다는 말도 들린다. 계속 젓을 짜먹으려면 젓소가 죽어서는 안되니까 말이다.

생산자의 아우성도 금년에는 볼 수 없다.

그간 그런대로 경기가 괜찮으니까 육계사육업자가 많아져 이번 기회에 그들이 따끔한 맛을보고 포기해주면 그후에는 폭등할 것이고 그



때 한복보고 지금은 쉬는 업자들은 그간 산전수전 다 겪고 도계유통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일가견을 쌓은 고참들이다.

도계유통은 정착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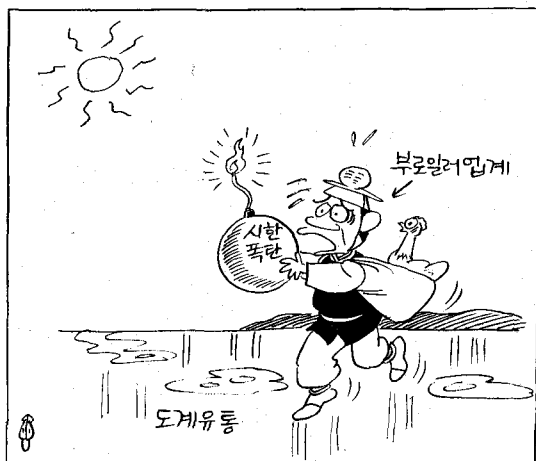
이 질문에 아직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생산자도 조용한 다수와 지도층 생산자들, 생계상, 도계상들의 이해균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 아닐 수 없다.

겨우 병아리와 사료값만 받는 선에서 언제까지나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시한은 아마도 삼복여름철이 고비가 아닐까 생각된다.

복(伏)을 앞두고 초생추 입식은 계속될 것이고 현재의 유통경로로는 이를 다 처리못해 값은 생산비 이하로 유지될 것이며 도계장의 현재 시설과 능력으로는 날씨가 더워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76년 이후 지난 7년간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때에 가면 하고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부로일러업계는 안고있는 것이며 이러한 불행은 76년 8.3사태보다도 더 큰 결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생계유통이 없어진 현재 불안요소를 없애고 도계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다.



무허가 건축물 (특정 건축물) 신고기간 연장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신고가 과태료가 너무 높아 그간 협회에서 수차 관계요로에 전의한 바 있었으나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었다.



협회는 다시 신고기간 마감일인 3월 31일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 6개월 정도 그 기간이라도 우선 연장하여 줄것을 전의한 바 이번 건설부에서 협회의 전의를 받아주어 지난 3월 28일자로 일차 중간회신이 왔고 정식으로 신고기간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다.

우선 그간 초읽기에 쫓겼던 해당 양측농가는 한숨돌리게 되었으나 양측가들이 원하는 과태료 문제해결은 아직도 남게 되었다.